

##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지역간 이동 특성

- 16개 특·광역시도별 2000~2006년 비교를 중심으로 -

윤순덕\*·김은자·강방훈·김상범·윤희정·정일영  
농촌진흥청 대변인실\*·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 Migration patterns of old population in Korea

Yoon, Soon Duck\*·Kim, Eun Ja·Kang, Bang Hun·Kim, Sang Bum·Yun, Hee Jung·Jung, Il Young  
Spokesperso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uwon, Korea\*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uwon, Korea

#### ABSTRACT

Although the majority of elderly are residentially stable, many western studies have recently reported that there has been a gradual growth of retirement migration.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at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the trend and nature of elderly migration. For this purpose, inter- and intra-province migration among the aged 65 and over were analyzed, using the migration data of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compiled from the 2000 and 2006 resident registration record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n increase of elderly migrants to 531 thousand persons in 2006 from 383 thousand persons in 2000. Secondly, the migration rate of elderly has steadily grown with a 11.7% in 2000 and 12% in 2006. Also, the move of female among old population was active but this trend tended to decrease in 2006. Thirdly, the number of provinces which showed a positive net inter-province migration of old population increased from 7 provinces in 2000 to 8 provinces in 2006. Fourthly, we found that the destinations of elderly migrants were mostly neighboring province except the Chungnam, Jeonbuk, and Jeju.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elderly migration would be expected to increase gradually and be important in the future of Korea.

Key words: elderly, population migration, elderly migration, intra- and inter province

#### I.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196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의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상당한 인구이동을 경험해오면서 가구의 주거이동은 현대사회에서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또한 이주자 자신과 그 가족은 물론 인구 유입, 유출지역 모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찍부터 인구이동은 국내에서도 연구의 관심대상이 되어 왔다. 주로 왜 이동하는가 하는 이동요인은 무엇이며 그 결

접수일: 2009년 4월 27일 채택일: 2009년 5월 29일

Corresponding Author: Yoon, Soon Duck Tel: 82-31-299-2412

e-mail: rdaysd@korea.kr

과 지역이나 이주자 및 그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는 주택, 교통 등 사회기반시설, 경제, 인제 육성 등 지역차원의 정책수립 과정이나 논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제로 인식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초기 연구들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대도시의 인구집중현상과 농촌의 인구유출 등 전국단위의 도시와 농촌간 인구이동을 파악하는 거시적 관점의 연구들(고태욱 1995; 이은우 1993)이 주류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나 대전광역시, 충남 등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연구(권용우·이자원 2000; 옥한석 2000; 정환영·고상임 2000; 권상철 2005; 최은영 2004; 최은영·조대현 2005; 정환영 2008)로 옮겨가는 경향이다. 이처럼 특정지역의 인구 유입, 유출현상을 살펴보는 연구는 증가하는 반면, 인구이동의 주체로서 노인인구와 같은 특정 연령층에 대한 지역간 이동을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구학적 현상 중의 하나로 인구의 고령화를 들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2000년에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07년에는 9.8%로 그 증가속도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 또한 1980년 66세에서 2006년 79.1세로 OECD 회원국의 평균수준을 넘어섰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노인들은 주거지의 안정성과 친근한 환경에 대한 강한 선호, 새로운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적응부담 때문에 이동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실증연구들(김진덕 1991; 이은우 1993)도 연령이 높을수록 이동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한다.

그러나 서구의 많은 연구들(Graff & Wiseman 1978; Lee 1980; Palmer & Gould 1986; Warnes & Law 1982)은 노인인구수의 절대적인 증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은퇴 후 기간 증가, 건강상태의 개선, 연금제도 등으로 인한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 보험, 공공정책 등 정부 보건프로그램의 향상 등으로 지금의 은퇴자들은 과거에 비해 이주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갖는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초기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가 젊은 층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과는 달리, 노인인구이동에 대한 연구들의 증가를 가져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은퇴 후 장거리 이동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한다. 또한 어떤 특성의 노인인구가 이동하고(손승영 1990; Biggar 1980; Reeder 1998), 어떤 요인이 노인인구이동에 중요하게 작용하는지(Judson et al. 1999; Warnes & Law 1982), 유입지역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Deller 1995; Haas & Serow 1990; Happel et al. 1988; Hodge 1991; Li & Maclean 1989; Reeder & Glasgow 1990; Reeder 1998; Sastry 1992; Wiseman 1991)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인인구이동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도 평균수명의 증가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건강한 노년기가 늘어나면서, 노후를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가 많은 사람들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도시민의 과반수 이상이 은퇴 후 농촌이주를 희망한다는 윤순덕 등(2005)과 송미령 등(2006)의 조사결과는 노년기 주거이동의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노인인구의 이동 실태는 거시적 관점에서 인구이동을 분석한 일부 연구들(한이철 등 2005)에서 연령대별 이동자 분포를 통해 단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정도이다. 가구단위의 미시적 연구 또한 가족생활주기별 이동의 동기, 빈도, 의사결정과정, 영향 등에 차이가 있는 걸 보아 노년기 주거이동이 하나의 중요한 연구대상이 될 수 있음(서승희·이경희 1994)을 시사할 뿐 우리나라 노인인구이동의 전반적인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 고령화 추세에 비해 노인인구이동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총인구이동과 대비하여 노인인구의 16개 특·광역 시도별 인구 이동량 및 이동방향, 그리고 2000년과 비교하여 최근 2006년의 동향 등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노인인구 유입지역의 주택, 교통, 교육 및 복지 등의 정책계획수립이나 지역균형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II. 연구방법

지역간 인구이동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가능한 자료로는 크게 통계청에서 매년 집계하여 발표하는 주민등록신고에 의한 집계자료를 이용하는 방법과 5년 단위의 전수조사인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전출입신고에 의한 인구이동자료는 매년 시군구단위까지의 인구이동 전수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 매년 총이동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출입의 신고누락, 허위 및 지연 신고, 행정단위에서의 집계과정에서 오차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자료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이창기 2002). 반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5년 전 거주지, 1년 전 거주지, 현거주지 등이 조사되어 현거주지와 이전 거주지와 차이로 인구이동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5세 미만은 조사되지 않으며 5년 내에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자로 파악되지 않으며 5년 이내에 여러 번 이주하는 경우는 그 이동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인구이동집계자료는 전수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반면, 인구주택총조사 원시자료는 2000년의 경우 표본의 2%를, 2005년의 경우는 표본의 5%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과 비교하여 최근 2006년 노인인구의 지역간 이동

동향을 분석하고자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집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8년 4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kmdss.nso.go.kr)을 통해 2000년과 가장 최근자료로 자료제공이 가능한 2006년도의 주민등록 인구이동 집계자료를 제공받았다. 전입지(시도/구시군), 전출지(시도/구시군), 전입구분, 전출구분, 전입사유, 전입자관계, 나이, 성별, 전입자수 항목을 요청하였다. 자료추출, 요청, 승인 후 다운로드, 가공처리현황 과정은 Fig. 1, 2와 같다. 제공받은 원시자료는 SPSS/win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인구(65세 이상) 이동 자료만을 추출하여 사용하였고, 읍면동의 경계를 넘지 않는 관내이동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지역별 이동추이 분석단위로는 16개 특·광역시·도(7특·광역시, 9도)이며, 2000, 2006년 각각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시도간/시도내 이동 및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시도별 전입, 전출, 순이동 및 전출지, 전입지 분포 등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총이동

총인구이동 대비 노인인구이동의 2000~2006년 변화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2006년 한 해 동안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동한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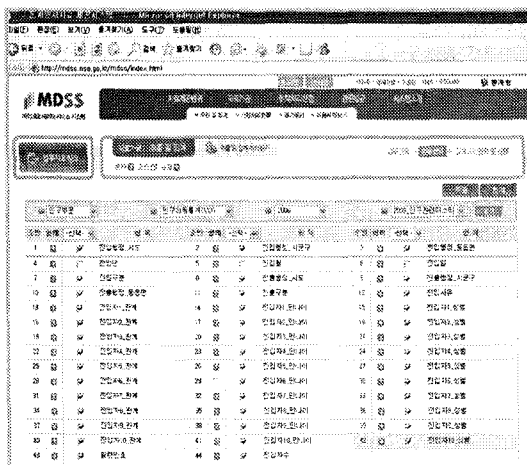


Fig. 1. Data Se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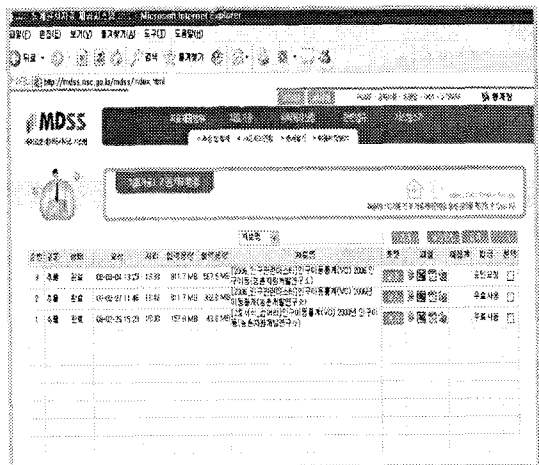


Fig. 2. Data Processing

이동자수는 총 531천명으로 2000년에 비해 148천 명이 증가하여 38.6%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총인구이동의 2000~2006년 증가율 3.7%와 비교했을 때 노인인구이동의 증가율이 총인구이동 증가율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로, 우리나라도 최근 노인층의 이동이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보여준다. 지역이동을 시도간이동과 시도내이동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06년 전체 노인인구의 이동 중 근거리의 같은 시도내 이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63.2%로, 2000년(62.6%)과 비교하여 약간 늘었지만 총인구이동(68.5%)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총인구이동 중 노인인구이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69%로 2000년 4.26%로 1.43%p 증가하였지만,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2000년 7.2%, 2006년 9.2%) 만큼에는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000~2006년 노인인구이동의 이동률과 성비를 총인구이동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노인인구의 이동률은 2000년 11.7%, 2006년 12%, 총인구의 이동률은 2000년 19%, 2006년 19.1%로 노인인구와 총인구의 이동률 모두 약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인구 100명 중 12명이, 총인구 100명 중 19명이 한 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6년 노인인구이동자의 성비는 52.5%로 총인구이동자의 성비 99.4%와 비교했을 때, 노인인구이동의 경우 총인구이동에 비해 여성의 이동이 활발하였는데, 이는 노인인구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높은 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0년 노인인구이동의 성비 48.7%와 비교했을 때는 남자노인의 이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특·광역 시도별 노인인구의 시도간 이동

- 1) 시도간 이동자의 전입, 전출, 순이동  
총인구이동 대비 노인인구이동의 시도간 이동

Table 1. Intra- and inter-province migration of aged vs. total population

		(person, %)					
		2000(A) migrants		2006(B) migrants		(B-A)	(B-A)/A
			%		%		
65+ Aged population	Total	383,900	100.0	531,989	100.0	148,089	38.6
	Intra-province	240,399	62.6	336,147	63.2	95,748	39.8
	Inter-province	143,501	37.4	195,842	36.8	52,341	36.5
Total population	Total	9,009,441	100.0	9,342,074	100.0	332,633	3.7
	Intra-province	6,163,610	68.4	6,395,405	68.5	231,795	3.8
	Inter-province	2,845,831	31.6	2,946,669	31.5	100,838	3.5
(aged migrants/total migrants)*100		4.26		5.69		1.43%p	

Table 2. Migration rate and sex ratio of aged vs. total migration

		65+ Aged population						Total population					
Year	total migration		intra-province		inter-province		total migration		intra-province		inter-province		
	M	S	M	S	M	S	M	S	M	S	M	S	
2000	11.7	48.7	7.3	48.1	4.4	49.8	19.0	98.7	13.0	97.8	6.0	100.7	
2006	12.0	52.5	7.6	53.1	4.4	51.4	19.1	99.4	13.1	98.5	6.0	101.3	

M(migration rate) : (migrants/total population)×100

S(sex ratio of migrants) : male migrants per 100 persons of female migrants

을 16개 특·광역시도별로 2000년과 2006년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첫째, 2006년 노인인구의 전입자수가 가장 많은 특·광역시도는 경기, 서울, 인천, 경북, 전남 순이고, 전출자수가 가장 많은 특·광역시도는 서울, 경기, 전남, 경북, 충남 순이었다. 반면, 2006년 총인구의

전입자수가 가장 많은 특·광역시도는 경기, 서울, 인천, 경북, 경남 순이고, 전출자수가 가장 많은 특·광역시도는 서울, 경기, 인천, 경북, 경남 순이었다. 이 중 2000년과 2006년 노인인구와 총인구의 전입자수가 많은 특·광역시도는 경기, 서울, 인천, 경북이 동일했고, 전출자수가 많은

Table 3. In-, out-, net migration of inter-province migrants by region

		65+ Aged migrants			Total migrants		
Year	Region	in-	out-	net migration- (in - out)	in-	out	net migration (in - out)
	Total	143,501	143,501	0	2,845,831	2,845,831	0
	Seoul	30,155	36,080	-5,925	636,978	683,917	-46,939
	Busan	7,132	7,904	-772	129,904	173,598	-43,694
	Daegu	5,623	5,656	-33	110,137	113,489	-3,352
	Incheon	8,263	7,362	901	173,216	160,051	13,165
	Gwangju	5,522	5,484	38	102,574	102,588	-14
	Deajeon	4,760	4,187	573	100,713	92,137	8,576
	Ulsan	2,452	1,874	578	50,831	47,615	3,216
2000	Gyeonggi	36,201	27,416	8,785	758,171	574,145	184,026
	Gangwon	4,071	4,231	-160	84,353	95,487	-11,134
	Chungbuk	4,150	4,077	73	78,171	82,575	-4,404
	Chungnam	6,637	6,986	-349	119,206	126,948	-7,742
	Jeonbuk	5,079	6,193	-1,114	82,574	104,164	-21,590
	Jeonnam	8,345	9,449	-1,104	130,945	164,483	-33,538
	Gyeongbuk	7,672	8,815	-1,143	133,094	158,800	-25,706
	Gyeongnam	6,747	7,097	-350	134,083	142,595	-8,512
	Jeju	692	690	2	20,881	23,239	-2,358
	Total	195,842	195,842	0	2,946,669	2,946,669	0
	Seoul	40,832	46,541	-5,709	652,799	689,350	-36,551
	Busan	8,865	9,724	-859	131,332	166,018	-34,686
	Daegu	6,832	7,965	-1,133	102,448	128,107	-25,659
	Incheon	11,301	9,709	1,592	175,529	165,911	9,618
	Gwangju	6,963	6,591	372	93,947	96,677	-2,730
	Deajeon	5,949	5,664	285	98,073	95,758	2,315
	Ulsan	3,527	2,990	537	51,446	53,857	-2,411
2006	Gyeonggi	52,108	42,415	9,693	810,616	671,983	138,633
	Gangwon	5,888	6,065	-177	84,274	93,834	-9,560
	Chungbuk	5,872	5,680	192	85,195	83,445	1,750
	Chungnam	9,857	10,034	-177	145,292	138,237	7,055
	Jeonbuk	6,592	7,994	-1,402	79,026	98,188	-19,162
	Jeonnam	9,970	12,430	-2,460	111,354	136,039	-24,685
	Gyeongbuk	10,631	11,662	-1,031	152,921	156,240	-3,319
	Gyeongnam	9,633	9,434	199	150,257	148,963	1,294
	Jeju	1,022	944	78	22,160	24,062	-1,902

(person)

특·광역시도는 서울, 경기만 일치하였다.

둘째, 2006년 노인인구와 총인구의 시도간 이동에서 순이동이 (+)인 특·광역시도로 7곳이 동일하고, 총인구이동에서는 충남 1곳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00년 노인인구의 순이동이 (+)인 특·광역시도는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제주 7곳이었으나, 2006년에는 경남이 추가되어 노인인구의 순이동이 (+)인 특·광역시도가 8곳으로 늘어났다. 반면, 2000년 총인구의 순이동이 (+)인 특·광역시도는 인천, 대전, 울산, 경기 4곳 뿐이었으나, 2006년에는 충북, 충남, 경남도 순이동이 (-)에서 (+)로 변화하여 7곳으로 증가하였다. 그런가하면, 2006년 기준, 전입보다 전출이 많았던 특·광역시도는 노인인구 이동의 경우 서울, 전남, 전북, 대구, 경북 순이었고, 총인구이동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 전남, 전북 순이었다. 즉, 서울, 대구와 같은 큰 특·광역시와 이와는 반대로 인구가 상대적으로 작은 전남, 전북 지역에서 전입보다 전출이 많았다.

셋째, 총인구와 노인인구의 순이동이 (-)인 특·광역시가 2000년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로 동일하였으나, 2006년에는 그 특·광역시의 수가 노인인구이동에서는 감소하고, 총인구이동에서는 늘어났다. 또한 2000년 총인구의 순이동은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가 (-)였으나 2006년에는 그 도의 수가 5개로 감소했고, 2000년 노인인구의 순이동이 (+)인 지역은 충북(73명)과 제주(2명)가 매우 미미하여 실질적으로 경기도 뿐이었으나, 2006년에는 이 지역의 순유입이 늘고, 경남이 (-)에서 (+)로 변화하였다. 즉, 노인인구의 전출보다 전입이 더 많은 도지역이 최근에 약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광역시보다는 인접한 경기도가 주를 이루면서 충북, 경남, 제주 등 전국범위로 분산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 2) 시도간 이동자의 전출지 분포

특·광역시도별로 특·광역시도경계를 넘어 전입해온 사람들의 전출지 분포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먼저, 총인구이동자들의 7개 특·광역시별 전출지 1위는 2000년과 2006년 모두 특·광역시와 인접한 도들이었으나, 전남과 경남

을 제외한 7개 도의 경우에는 인근 광역시도보다 경기, 서울 등 수도권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반면, 노인인구이동자들의 7개 특·광역시별 전출지 1위는 2000년의 경우 서울, 대구, 인천만이 인접한 도이었으나 2006년에는 7개 특·광역시 모두 인접한 도에서 전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9개 도의 경우, 2000년에는 모두 서울, 경기로부터 전출이 가장 많았으나 2006년에는 전남, 경북, 경남 3개 도가 인접한 광역시로부터 전출해 오는 등 총인구이동의 전출지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 3) 시도간 이동자의 전입지 분포

반대로, 특·광역시도별로 특·광역시도경계를 넘어 전출한 사람들의 전입지 분포를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첫째, 16개 특·광역시도별 시도간 전입자의 전출지 분포와 비교했을 때 2000, 2006년 총인구의 16개 특·광역시도 중 2000년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특·광역시도의 전입지 1위와 전출지 1순위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많이 전출한 지역으로부터의 전입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런가하면, 시도간 노인이동자들의 전입지 1순위가 2000년의 경우 서울, 대구,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 8개 특·광역시도에서만 전출지 1순위와 동일하였으나, 2006년의 경우에는 제주를 제외한 15개 특·광역시도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노인인구이동의 전입지와 전출지 1순위가 총인구이동의 그것과 같이 서로 동일해지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총인구이동자나 노인인구이동자 모두 7개 특·광역시별 전입지 1위는 2000년과 2006년 모두 인접한 도이었으나, 충남과 전북, 제주를 제외한 6개도 전출자들의 전입지 1위는 인접한 광역시도 보다는 경기, 서울 등 수도권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16개 특·광역시도별 전출자들의 전입지 1순위 분포는 총인구이동자와 노인인구이동자간에, 2000년도와 2006년도 간에 차이나 변화가 없었다. 선진지역일수록 중핵지역으로의 전입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조혜중 1993), 그러한 진전이 총인구이동이나 노인인구이동 모두에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특·광역시도별 노인인구의 시도내 이동  
총인구이동 대비 노인인구이동의 시도내 이동을 16개 특·광역시도별로 2000년과 2006년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Table 6와 같다. 시도내 이동은 시군구내 이동과 시군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2000년 노인인구와 총인구의 시도내 이동은 공통적으로 7개 특·광역시의 경우, 군구내 이동 보다는 군구간 이동이 더 많고, 9개 도의 경우는 시군간 이동보다 시군내 이동이 더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2006년 9개 도에서는

Table 4. Origin distribution of inter-province migrants by region

Year	Destination	(person)												
		65+ Aged migrants						Total migrants						
		in-migrants	1st	2nd	3th	4th	5th	in-migrants	1st	2nd	3th	4th	5th	
2000	Total	143,501	S	GG	GB	JN	BS	2,845,831	S	GG	BS	JN	IC	
	Seoul	30,155	GG	JN	GB	GW	GN	636,978	GG	IC	JN	JB	BS	
	Busan	7,132	S	GN	GG	GB	JN	129,904	GN	S	GG	GB	US	
	Daegu	5,623	GB	S	GG	GN	BS	110,137	GB	S	GN	GG	BS	
	Incheon	8,263	GG	S	JN	GW	CN	173,216	GG	S	CN	JN	GW	
	Gwangju	5,522	S	GG	JN	JB	BS	102,574	JN	S	GG	JB	IC	
	Deajeon	4,760	GG	S	CN	GB	JN	100,713	CN	GG	S	CB	JB	
	Ulsan	2,452	S	GB	GN	GG	BS	50,831	BS	GN	GB	S	GG	
	Gyeonggi	36,201	S	JN	GW	GB	CN	758,171	S	IC	CN	GW	JN	
	Gangwon	4,071	GG	S	GB	IC	BS	84,353	GG	S	IC	CB	GB	
	Chungbuk	4,150	GG	S	GB	CN	GW	78,171	GG	S	DJ	CN	GW	
	Chungnam	6,637	S	GG	IC	JB	JN	119,206	GG	S	DJ	IC	CB	
	Jeonbuk	5,079	S	CB	GG	IC	GB	82,574	S	GG	JN	GJ	CN	
	Jeonnam	8,345	S	GG	BS	JB	GN	130,945	GJ	S	GG	JB	BS	
	Gyeongbuk	7,672	S	GG	BS	GN	DG	133,094	S	GG	BS	GN	US	
	Gyeongnam	6,747	S	BS	GG	GB	JN	134,083	BS	S	GG	GB	DG	
Jeju	692	S	GG	BS	JN	GN	20,881	S	GG	BS	GN	JN		
2006	Total	195,842	S	GG	JN	GB	BS	2,946,669	S	GG	BS	IC	GB	
	Seoul	40,832	GG	IC	JN	JB	CN	652,799	GG	IC	CN	BS	GW	
	Busan	8,865	GN	S	GG	GB	US	131,332	GN	S	GG	US	GB	
	Daegu	6,832	GB	S	GN	GG	BS	102,448	GB	GN	GG	S	BS	
	Incheon	11,301	GG	S	CN	JN	JB	175,529	GG	S	CN	GW	JB	
	Gwangju	6,963	JN	S	GG	JB	IC	93,947	JN	GG	S	JB	IC	
	Deajeon	5,949	CN	S	GG	CB	JB	98,073	CN	GG	S	CB	JB	
	Ulsan	3,527	BS	GB	GN	S	GG	51,446	BS	GB	GN	S	GG	
	Gyeonggi	52,108	S	IC	CN	GW	JN	810,616	S	IC	CN	GW	JB	
	Gangwon	5,888	GG	S	IC	GB	CB	84,274	GG	S	IC	CB	GB	
	Chungbuk	5,872	GG	S	DJ	CN	GW	85,195	GG	S	DJ	CN	GW	
	Chungnam	9,857	GG	S	DJ	IC	CB	145,292	GG	S	DJ	IC	CB	
	Jeonbuk	6,592	S	GG	JN	GJ	CN	79,026	GG	S	JN	GJ	CN	
	Jeonnam	9,970	GJ	S	GB	GG	JB	111,354	GJ	GG	S	JB	GN	
	Gyeongbuk	10,631	DG	S	GG	BS	GN	152,921	DG	GG	S	BS	GN	
	Gyeongnam	9,633	BS	GG	S	GB	DG	150,257	BS	GG	S	DG	GB	
Jeju	1,022	S	GG	BS	JN	IC	22,160	S	GG	BS	GN	IC		

\* Seoul(S), Busan(BS), Daegu(DG), Incheon(IC), Gwangju(GJ), Deajeon(DJ), Ulsan(US), Gyeonggi(GG), Gangwon(GW), Chungbuk(CB), Chungnam(CN), Jeonbuk(JB), Jeonnam(JN), Gyeongbuk(GB), Gyeongnam(GN), Jeju(J)

동일하였으나, 7개 특·광역시외의 경우 2000년 경향과 다른 광역시가 노인인구와 총인구에서 각각 발견되었다.

둘째, 2000년과 2006년 군구내 이동과 군구간 이동의 비중이 바뀐 특·광역시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노인인구이동에서는 울산광역시 1곳이, 총인구이동에서는 인천, 광주, 울산광역시 등 3곳이 2000년의 경향과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인구규모가 작은 특·광역시가 더 근거리간 이동인 군구내 이동이 점차 늘어나는 경

Table 5. Destination distribution of inter-province migrants by region

Year	Origin	65+ Aged migrants					Total migrants					(person)	
		out-migrants	1st	2nd	3th	4th	5th	out-migrants	1st	2nd	3th	4th	5th
2000	Total	143,501	GG	S	JN	IC	GB	2,845,831	GG	S	IC	GN	GB
	Seoul	36,080	GG	IC	JN	JB	CN	683,917	GG	IC	CN	JN	GW
	Busan	7,904	GN	S	GG	GB	US	173,598	GN	S	GG	US	GB
	Daegu	5,656	GB	S	GG	GN	BS	113,489	GB	S	GG	GN	BS
	Incheon	7,362	GG	S	CN	JB	JN	160,051	GG	S	CN	GW	JN
	Gwangju	5,484	JN	S	GG	JB	IC	102,588	JN	S	GG	JB	IC
	Deajeon	4,187	CN	S	GG	CB	JB	92,137	CN	S	GG	CB	JB
	Ulsan	1,874	BS	GB	GN	GG	S	47,615	BS	GN	GB	S	GG
	Gyeonggi	27,416	S	IC	CN	GW	JB	574,145	S	IC	CN	GW	CB
	Gangwon	4,231	GG	S	CB	GB	IC	95,487	GG	S	IC	CB	GB
	Chungbuk	4,077	GG	S	DJ	CN	IC	82,575	GG	S	DJ	CN	GW
	Chungnam	6,986	GG	S	DJ	IC	CB	126,948	GG	S	DJ	IC	CB
	Jeonbuk	6,193	S	GG	JN	DJ	GJ	104,164	S	GG	JN	GJ	DJ
	Jeonnam	9,449	GJ	S	GG	JB	IC	164,483	GJ	S	GG	JB	IC
	Gyeongbuk	8,815	DG	S	GG	BS	US	158,800	DG	S	GG	BS	GN
	Gyeongnam	7,097	BS	S	GG	DG	US	142,595	BS	S	GG	GB	DG
Jeju	690	S	GG	BS	IC	JN	23,239	S	GG	BS	JN	GN	
2006	Total	195,842	GG	S	IC	GB	JN	2,946,669	GG	S	IC	GB	GN
	Seoul	46,541	GG	IC	CN	JN	JB	689,350	GG	IC	CN	GW	JB
	Busan	9,724	GN	GG	S	GB	US	166,018	GN	S	GG	US	GB
	Daegu	7,965	GB	GG	S	GN	BS	128,107	GB	S	GG	GN	BS
	Incheon	9,709	GG	S	CN	JN	JB	165,911	GG	S	CN	GW	CB
	Gwangju	6,591	JN	S	GG	JB	IC	96,677	JN	S	GG	JB	IC
	Deajeon	5,664	CN	GG	S	CB	JB	95,758	CN	GG	S	CB	JB
	Ulsan	2,990	BS	GN	GB	GG	E	53,857	BS	GN	GB	S	GG
	Gyeonggi	42,415	S	IC	CN	GW	JB	671,983	S	IC	CN	GW	CB
	Gangwon	6,065	GG	S	IC	CB	GB	93,834	GG	S	IC	CB	GB
	Chungbuk	5,680	GG	S	DJ	CN	GW	83,445	GG	S	DJ	CN	GW
	Chungnam	10,034	GG	S	DJ	IC	CB	138,237	GG	S	DJ	CB	IC
	Jeonbuk	7,994	S	GG	JN	GJ	IC	98,188	GG	S	CN	GJ	JN
	Jeonnam	12,430	GJ	S	GG	JB	IC	136,039	GJ	GG	S	JB	IC
	Gyeongbuk	11,662	DG	GG	S	BS	US	156,240	DG	GG	S	GN	BS
	Gyeongnam	9,434	BS	GG	S	US	DG	148,963	BS	S	GG	GB	DG
Jeju	944	GG	S	BS	JN	IC	24,062	S	GG	BS	GN	JN	

\* Seoul(S), Busan(BS), Daegu(DG), Incheon(IC), Gwangju(GJ), Deajeon(DJ), Ulsan(US), Gyeonggi(GG), Gangwon(GW), Chungbuk(CB), Chungnam(CN), Jeonbuk(JB), Jeonnam(JN), Gyeongbuk(GB), Gyeongnam(GN), Jeju(J)



Table 6. Intra-province migration by region

		(person)					
Year	Region	65+ Aged population			Total population		
		total	intra- <sup>1)</sup>	inter- <sup>2)</sup>	total	intra- <sup>1)</sup>	inter- <sup>2)</sup>
2000	Total	240,399(100.0)	120,668(50.2)	119,731(49.8)	6,163,610(100.0)	3,299,280(53.5)	2,864,330(46.5)
	Seoul	57,532(100.0)	24,599(42.8)	32,933(57.2)	1,582,429(100.0)	705,781(44.6)	876,648(55.4)
	Busan	19,615(100.0)	7,087(36.1)	12,528(63.9)	466,071(100.0)	183,925(39.5)	282,146(60.5)
	Daegu	14,193(100.0)	5,814(41.0)	8,379(59.0)	367,458(100.0)	159,243(43.3)	208,215(56.7)
	Incheon	12,932(100.0)	5,908(45.7)	7,024(54.3)	358,102(100.0)	170,161(47.5)	187,941(52.5)
	Gwangju	7,762(100.0)	3,328(42.9)	4,434(57.1)	198,924(100.0)	92,582(46.5)	106,342(53.5)
	Deajeon	7,575(100.0)	3,226(42.6)	4,349(57.4)	211,847(100.0)	92,251(43.5)	119,596(56.5)
	Ulsan	2,875(100.0)	1,351(47.0)	1,524(53.0)	115,859(100.0)	58,355(50.4)	57,504(49.6)
	Gyeonggi	46,178(100.0)	25,209(54.6)	20,969(45.4)	1,284,156(100.0)	760,797(59.2)	523,359(40.8)
	Gangwon	8,194(100.0)	5,662(69.1)	2,532(30.9)	171,050(100.0)	122,083(71.4)	48,967(28.6)
	Chungbuk	6,761(100.0)	4,276(63.2)	2,485(36.8)	156,984(100.0)	108,964(69.4)	48,020(30.6)
	Chungnam	6,017(100.0)	4,023(66.9)	1,994(33.1)	146,393(100.0)	105,655(72.2)	40,738(27.8)
	Jeonbuk	15,071(100.0)	8,758(58.1)	6,313(41.9)	268,054(100.0)	179,686(67.0)	88,368(33.0)
	Jeonnam	10,051(100.0)	5,916(58.9)	4,135(41.1)	194,566(100.0)	129,317(66.5)	65,249(33.5)
	Gyeongbuk	10,647(100.0)	7,041(66.1)	3,606(33.9)	247,544(100.0)	176,848(71.4)	70,696(28.6)
Gyeongnam	12,770(100.0)	7,168(56.1)	5,602(43.9)	329,812(100.0)	212,720(64.5)	117,092(35.5)	
Jeju	2,226(100.0)	1,302(58.5)	924(41.5)	64,361(100.0)	40,912(63.6)	23,449(36.4)	
2006	Total	336,147(100.0)	177,283(52.7)	158,864(47.3)	6,395,405(100.0)	3,547,116(55.5)	2,848,289(44.5)
	Seoul	71,180(100.0)	31,622(44.4)	39,558(55.6)	1,521,108(100.0)	689,769(45.3)	831,339(54.7)
	Busan	25,244(100.0)	10,093(40.0)	15,151(60.0)	428,583(100.0)	182,601(42.6)	245,982(57.4)
	Daegu	18,770(100.0)	8,613(45.9)	10,157(54.1)	325,969(100.0)	160,586(49.3)	165,383(50.7)
	Incheon	17,191(100.0)	8,344(48.5)	8,847(51.5)	347,928(100.0)	180,422(51.9)	167,506(48.1)
	Gwangju	11,524(100.0)	5,222(45.3)	6,302(54.7)	207,532(100.0)	104,288(50.3)	103,244(49.7)
	Deajeon	9,917(100.0)	4,356(43.9)	5,561(56.1)	196,741(100.0)	88,470(45.0)	108,271(55.0)
	Ulsan	4,642(100.0)	2,318(49.9)	2,324(50.1)	122,943(100.0)	64,972(52.8)	57,971(47.2)
	Gyeonggi	82,421(100.0)	45,871(55.7)	36,550(44.3)	1,649,025(100.0)	993,502(60.2)	655,523(39.8)
	Gangwon	11,114(100.0)	7,979(71.8)	3,135(28.2)	170,234(100.0)	123,916(72.8)	46,318(27.2)
	Chungbuk	9,140(100.0)	5,843(63.9)	3,297(36.1)	160,782(100.0)	104,103(64.7)	56,679(35.3)
	Chungnam	9,496(100.0)	6,695(70.5)	2,801(29.5)	191,574(100.0)	141,168(73.7)	50,406(26.3)
	Jeonbuk	18,352(100.0)	11,221(61.1)	7,131(38.9)	248,211(100.0)	169,260(68.2)	78,951(31.8)
	Jeonnam	11,658(100.0)	7,211(61.9)	4,447(38.1)	172,922(100.0)	115,937(67.0)	56,985(33.0)
	Gyeongbuk	13,968(100.0)	9,449(67.6)	4,519(32.4)	238,565(100.0)	169,701(71.1)	68,864(28.9)
Gyeongnam	18,430(100.0)	10,347(56.1)	8,083(43.9)	346,456(100.0)	211,879(61.2)	134,577(38.8)	
Jeju	3,100(100.0)	2,099(67.7)	1,001(32.3)	66,832(100.0)	46,542(69.6)	20,290(30.4)	

1) intra- : intra-SIS, GUNS, GUS

2) inter- : inter-SIS, GUNS, GUS

\* Seoul(S), Busan(BS), Daegu(DG), Incheon(IC), Gwangju(GJ), Deajeon(DJ), Ulsan(US), Gyeonggi(GG), Gangwon(GW), Chungbuk(CB), Chungnam(CN), Jeonbuk(JB), Jeonnam(JN), Gyeongbuk(GB), Gyeongnam(GN), Jeju(J)

향이며, 이러한 경향은 노인인구 보다는 총인구 이동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대부분의 노인들은 주거지의 안정성과 친근한 환경에 대한 강한 선호, 새로운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적응부담 때문에 이동을 희망하지 않아, 연령이 높을수록 이동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에서는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은퇴 후 장거리 이동이 증가하면서 인구이동연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노인인구이동에 대한 연구가 저조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인구의 지역간 이동 추이 및 특성을 총인구이동과 대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의 2000년과 2006년도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 집계자료를 제공받아 SPSS/win프로그램을 이용, 16개 특·광역시도별로 노인인구의 시도간/시도내 이동 추이와 전출·전입지 분포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2006년 한 해 동안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동한 노인이동자수는 총 531천명으로 2000년에 비해 148천명이 증가하여 38.6%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총인구이동의 2000~2006년 증가율 3.7%와 비교했을 때 노인인구이동의 증가율이 총인구이동 증가율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로, 우리나라도 최근 노인층의 이동이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보여줌으로써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둘째, 노인인구의 이동률은 2000년 11.7%, 2006년 12%, 총인구의 이동률은 2000년 19%, 2006년 19.1%로 노인인구와 총인구의 이동률 모두 약간 증가하였다. 한편, 총인구이동에 비해 노인인구 이동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이동이 활발하였지만, 2006년에는 2000년에 비해 남자노인의 이동이 차츰 활발해지는 경향이었다. 이는 전체 노인인구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때문일 것이다.

셋째, 시도간이동에서 2000년 노인인구의 순이동이 (+)인 특·광역시도는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제주 7곳이었고, 2006년에는 경남이 추가되어 총 8곳이었다. 서울, 부산, 대구와

같은 큰 특·광역시는 일관되게 노인인구의 전입보다 전출이 많았고, 전출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은 인근지역인 경기도로 대부분 이동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충북, 제주, 경남지역으로 노인인구의 순유입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추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넷째, 시도간 노인이동자들의 특·광역시별 전출지 1위는 2000년 서울, 대구, 인천만이 인접한 도이었으나 2006년에는 7개 특·광역시 모두 인접한 도였다. 9개 도의 2000년 전출지 1위는 모두 서울, 경기의 수도권이었으나 2006년 전남, 경북, 전남도는 인접한 특·광역시이었다. 반면, 총인구이동자나 노인인구이동자 모두 7개 특·광역시별 전입지 1위는 2000년과 2006년 모두 인접한 도이었으나, 충남과 전북, 제주를 제외한 6개 도 전출자들의 전입지 1위는 인접한 특·광역시도 보다는 경기, 서울 등 수도권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기, 서울 등 수도권 노인들의 전입지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되고 있는지, 점점 전국으로 광역화되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위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도 노인인구이동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일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총인구이동에 비해 노인인구이동은 원거리의 시도간 이동 비율이 높지만 인접한 특·광역시나 도에서 전출해오는 경향임을 전국규모의 데이터를 이용, 총인구이동과 대비하여 밝혔다는 데 무엇보다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추후 좀 더 세분화된 노인인구이동 연구수행이나 특·광역시 인근 지역의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용자료나 분석단위 등에서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다. 먼저, 인구이동분석에 이용한 주민등록에 의한 집계자료는 출입의 신고누락, 허위 및 지연 신고, 행정단위에서의 집계과정에서 오차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자료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로 조사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나 생잔율법 등 다양한 인구이동분석법을 이용한 노인인구이동 파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또한 16개 특·광역시도를 분석단위로 하여 2000, 2006

년의 거시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지리적 이동공간패턴을 보아, 전국적인 경향과 이동 방향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나 우리나라는 서구에 비해 지역의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시·군단위까지의 세부적인 정보를 주지 못한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복잡하게 전개되는 인구이동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위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 구체적으로 노인인구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노인들이 어느 지역으로 주로 이동하는지 시·군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유입이 많은 시·군의 특성과 특정지역으로 이동하는 노인들의 특성을 구명하는 작업이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동일한 노인이라 하더라도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다양한 특성을 보일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므로, 노인인구를 60대, 70, 80세 이상 등으로 나누어 연령대별 이동패턴, 전입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추적하는 연구 또한 후속연구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들은 노인인구이동의 초기단계에는 산업화시기에 취업을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했던 인구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아 도시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어려워 출생지나 어린시절 성장지 등으로 돌아가는 귀환이동이 주를 이루는지, 아니면 패적한 일부 특정지역으로 이동하는지,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나타나는지 등 장기적인 조망이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고태욱(1995) 지역간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산경논총, 117~132.  
 권상철(2005) 우리나라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6), 571~584.  
 권용우·이자원(2000)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공간적 패턴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34(3), 151~165.  
 김진덕(1991) 지역간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지역정책연구 2, 137~153.  
 서승희·이경희(1994) 노인의 주거이동에 관한 이론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41~49.  
 손승영(1990) 노령인구 이동의 요인분석. 한국사회학 24, 121~147.  
 송미령(2006)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대안

개발 관련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옥한석(2000) 서울부근의 인구이동과 토지이용 변화에 관한 연구. 강원문화연구 19, 149~165.  
 윤순덕·박공주·강경하·이정화(2005) 도시 장년층의 은퇴 후 농촌이주의사 결정요인. 한국노년학 25(3), 139~153.  
 이은우(1993) 농촌·도시간 인구이동의 실태와 영향. 노동경제논집 제16권, 107~129.  
 이창기(2002) 동해안 어촌마을의 인구이동. 농촌사회 12(2), 131~156.  
 정환영(2008) 충청남도 유·출입인구의 속성비교,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2), 33~46.  
 정환영·고상임(2000) 대전광역시 고령화지구의 공간적 분포 패턴. 한국지역지리학회지 6(2), 1~19.  
 조혜종(1993) 광주 중심의 인구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 지리학 28(1), 40~57.  
 최은영(2004) 선택적 인구이동과 공간적 불평등의 심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7(2), 57~69.  
 최은영·조대현(2005) 서울시 내부 인구이동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2), 169~186.  
 한이철·이정재·정남수·박미정·서교(2005). 공간계량모형을 이용한 연령대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 농촌계획 11(3), 59~67.  
 Biggar JC(1980) Reassessing elderly sunbelt migration. Research on Aging 2(2), 177~190.  
 Deller SC(1995) Economic Impact of Retirement Migration.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9(1), 25~38.  
 Graff TO, Wiseman RF(1978) Changing concentrations of older Americans. The Geographical Review 68, 379-393.  
 Haas WH, Serow WJ(1990) The influence of retirement in-migration on local economic development. Final report to the Appalachian Regional Commission, No. 89-48NC-10269-89-1-302-0327. Asheville, NC: North Carolina Center for Creative Retirement.  
 Happel SK, Hogan TD, Pflanz E(1988) The economic impact of elderly winter residents in the Phoenix area. Research on Aging 10, 119-133.  
 Hodge G(1991) The Economic Impact of Retirees on Smaller Communities: Concepts and Findings from three Canadian Studies. Research on Aging 13(1), 39-54.  
 Judson DH, Reynolds-Scanlon S & Popoff CL(1999) Migrants to Oregon in the 1990's: Working age, near-retirees, and retirees make different destination choices: Rural Development Perspectives, 14(2), 24~31.  
 Lee A(1980) Aged migration: Impact on service delivery. Research on Aging 2, 243~253.  
 Li PS, MacLean BD(1989) changes in the rural elderly population and their effects on the small town economy: The case of Saskatchewan, 1971~1986. Rural sociology 54(2), 213~226.  
 Palmer J & Gould S(1986) Economic consequences of population aging in our aging society: Paradox

- and promise. N. Y. Columbia University.
- Reeder RI, Glasgow N(1990) Nonmetro retirement counties' strengths and weakness. Rural Development Perspective 6, 12~17.
- Reeder RJ(1998) Retiree-Attraction Policies for Rural Development. food and rural Economics Division, Economic Research Servic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Agriculture Information Bulletin No. 741.
- Sastry ML(1992) Estimating the Economic Impacts of Elderly Migration : An Input-Output Analysis. Growth and Change 23, 54~79.
- Warnes AM & Law CM(1982) The destination decision in retirement migration, In A. M. Warnes (ed.), Geographical perspectives on the elderly(pp. 53~81), Chichester: Wiley.
- Wiseman RF(1991) Direct and Indirect Economic Impacts of Elderly Migration on Selected States within the Appalachian Region, Change in the Mountains: Elderly Migration and Population Dynamics in Appalachia. Lexington, Ky.: Sanders-Brown Center on Aging. 71~84.